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4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8.14~2025.08.20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기초자치단체(주민투표\개편\공론화), 청년, 민원, 구역, 토론회
경제·관광	수출, 관광객, 홍보, 싱가포르, 농업
지역·사회	단속, 해상, 도로, 차량, 신공항

※ 분석 기간 : 25.08.14.~25.08.20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주 민투표\ 개편\ 공 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제 개편안 두고 여론조사 충돌 - 제주도의회, 중재 위한 자체 여론조사 실시 - 개편 예산 삭감 및 정부 국정과제 포함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희비 교차 - 제주청년대상 신설 및 후보자 모집 - 대학생 중심 청년자율방재단 활동 확대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민원 증가에 모의훈련으로 대응 강화 - 버스 기사 불친절, 도지사 직접 개선 지시 - 민원 담당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구역 vs 2개 구역, 정치권 갈등 심화 - 중산간 보전 위한 개발 허가 기준 강화 - 차고지증명제 완화, 주차환경 변화 초래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개편안 두고 도의회 토론회 개최 - 토론회서 여론조사 실효성 문제 제기 -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2차 전문가 토론회 예고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7월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시장 다변화 - 수출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 강화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절 연휴 관광객 증가 및 회복세 - 해양관광 소비 부진 및 부정적 이미지 -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노력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 인기 드라마 연계 관광 상품 개발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 축제 개최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웨이항공, 제주-싱가포르 직항 취항 - 현지 여행박람회 참가 및 홍보 활동 - 동남아 시장 공략의 허브로 활용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조건 논란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신상품 개발 및 농가 소득 증대 노력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마약 사범 급증, 집중 단속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여름철 수상레저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녕해변서 40대 익수 사망 사고 - 바다에 빠진 4남매 구조한 영웅들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 불감증 심각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상 자전거길, 불법주차로 몸살 - 서광로 BRT, 속도 향상과 풍선효과 - 광양사거리 BRT 우회전 차로 신설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좌읍 4중 연쇄 추돌사고 -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인상 실효성 논란 - 전기 이동수단 배터리 화재 위험
	신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국정과제에 전격 포함 - 시민단체, 제2공항 국정과제 포함 반발 - 신공항 추진, 기후위기 역행 비판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8월 14일~8월 20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28건임
 - 정치·행정 분야 328건, 경제·관광 131건, 지역·사회 269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기초자치단체(주민투표, 개편, 공론화), 청년, 민원, 구역, 토론회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주민 투표\개 편\공론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제 개편안 두고 여론조사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둘러싼 혼선이 가중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3개 기초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반면, 제주연구원은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함 · 두 조사는 설문 문항 설계에서 차이를 보여 객관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됨. 민주당 조사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반면, 연구원 조사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서술한 뒤 찬반을 물어 찬성 유도 비판을 받음
-------	-------------------------------------	--

	<p>기초자치 단체(주민 투표\개 편\공론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중재 위한 자체 여론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로 혼란이 커지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주도로 의회 차원의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함. 이는 '3개 구역안'과 '2개 구역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를 직접 확인해 논란을 종식하려는 시도임 · 여론조사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정구역 개편안 선호도와 적정 추진 시기 등을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됨. 조사 결과는 9월 초 공개될 예정이나, 제주도와 김한규 의원 측 모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함 - 개편 예산 삭감 및 정부 국정과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예산 198억 원 중 5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도 주민투표 확정 후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수정 의결함. 이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됨 · 한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일부 확보함. 오영훈 지사는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공동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함
<p>정치·행정</p>	<p>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희비 교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은 300가구 모집에 1151가구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매우 높음을 시사함 · 반면,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850가구 모집에 296가구만 신청해 참여율이 35%에 그침. 기존 주거급여 등과의 중복 수급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제주도는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2차 모집에 나섬 - 제주청년대상 신설 및 후보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주청년대상'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함. 이는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 · 추천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으로,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선정해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임. 8월 25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기관·단체장의 추천이 필요함 - 대학생 중심 청년자율방재단 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주청년자율방재단이 기존 재난 대응 역할을 넘어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활동 영역을 넓힘. 이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 사회복지·간호학 전공생 23명으로 구성된 방재단은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점검 등 방재 활동과 더불어,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소도구를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정치·행정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민원 증가에 모의훈련으로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제주도내에서 폭언·폭행, 담당자 신상공격 등 정상적 민원 처리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민원'이 22건 발생함. 이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이에 제주도는 도청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거부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폭언 및 위협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함.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분리, 경찰 연계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함 - 버스 기사 불친절, 도지사 직접 개선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 등에 버스 기사의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오영훈 지사가 직접 문제를 지적하고 나섬.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이 도정 정책 효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임 · 오 지사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담당 부서에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운수회사 대표들과의 긴급 간담회 개최를 지시함 - 민원 담당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오영훈 지사에게 직접 근무환경 개선을 건의함. 이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임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저경력 공무원을 위한 민원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집합교육 및 워크숍 확대, 휴가나 병가 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등이 제시됨. 오 지사는 교육 지원 및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약속함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구역 vs 2개 구역, 정치권 갈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안과 '2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함 ·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의원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3개 구역' 안을 추진하는 반면,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2개 구역' 안을 고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임 - 중산간 보전 위한 개발 허가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함. 이는 지하수와 산림 등 핵심 보전자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 ·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시, 발생 하수 전량을 중수도로 처리해야 함. 또한 10만㎡ 이상

		<p>개발 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고, 별채량의 150%를 의무적으로 다시 심어야 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됨</p> <p>- 차고지증명제 완화, 주차환경 변화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일의 차고지증명제가 올해 3월 대폭 완화되면서 도내 차량 37만 대 중 26만 대의 등록 의무가 사라짐. 이는 경형차, 소형차, 저공해차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자녀, 장애인 가구 등에도 혜택이 적용됨 · 제도가 완화되자 기존에 비용을 내고 차고지를 확보했던 운전자들이 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지 인근으로 주차 공간을 옮기는 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공영 및 사설 주차장의 차고지 증명 임대료가 인하되고,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이 감소하는 등 주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
정치·행정	토론회	<p>- 행정구역 개편안 두고 도의회 토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토론회가 도의회 주최로 열림. 이는 의회가 추진하는 여론조사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도민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함 <p>- 토론회서 여론조사 실효성 문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토론자들은 의회 주도 여론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함. 제주도정과 김한규 의원 양측 모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조사가 갈등 해결보다 분열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절차적 정당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됨. 의회 전체 의결 없이 의장 주도로 추진되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합의 과정이 생략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p>-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2차 전문가 토론회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전문가 및 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는 30년간 유지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임 · 토론회에서는 '압축도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서울시 도시관리 사례 공유, 제주 지역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 10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수출, 관광객, 홍보, 싱가포르, 농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7월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제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42.2% 증가한 32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4개월 만에 경신함. 이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이며 , 반도체와 농수산물 등 전통 품목의 호조와 의약품 등 신성장 품목의 약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181.8%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했으며, 농림수산물과 의약품 수출도 각각 25.4%, 998.9%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임. 반면, 화장품 수출은 주요 시장의 정체로 12.3%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시장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홍콩, 대만뿐 아니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수출이 확대되며 급증세를 보임. 농림수산물 분야에서는 넉치 등 전통 품목이 꾸준한 가운데, 수산가공품과 사탕과자류가 각각 2만8841.3%, 7958.1%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뒷받침함 · 제주양돈농협은 제주돈육수출센터, LS TRADING과 협력하여 제주산 돼지고기 가공식품의 몽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를 통해 몽골 내
-------	----	---

경제·관광	수출	<p>대형 유통채널을 공략하고 현지 K-FOOD 행사 참여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p> <p>- 수출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상반기 제주 총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현장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내 주력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관세 인상 부담, 축산물 수출 시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함 ·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상 및 물류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개설되는 제주-칭다오 항로를 적극 활용해 물류비 절감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내년도 수출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임
	관광객	<p>- 광복절 연휴 관광객 증가 및 회복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기간(13~17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총 22만 43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임. 특히 연휴 둘째 날인 14일에는 5만 127명이 방문해 올해 들어 하루 최다 관광객 수를 기록함 ·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가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외 정책 및 마케팅 활동의 효과와 하반기 관광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함.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9월 추석 연휴를 겨냥한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과 단체여행 인센티브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임 <p>- 해양관광 소비 부진 및 부정적 이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바다가는 달'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제주 연안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3.1%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12.3%)에 크게 못 미침. 특히 같은 기간 제주 연안의 소비 증가율은 -8.7%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며 소비 부진의 심각성을 드러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제주형 항공편 감편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을 지적함. 식음료와 쇼핑에 비해 숙박과 여가서비스 소비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도 특징으로 분석됨 <p>-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버스 내 휴대폰 간편결제(QR 결제) 시스템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늘어남. 이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버스 이용정보'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함 · 해당 영상은 제주한라대학교 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공항을 기점으로 한 주요 노선, 버스 색상별 의미, 환승 방법, 주요 관광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등 실용적인 정보를 총 12편으로 구성하여 제공함

경제·관광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해외 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국경절 연휴와 연계해 온라인여행사와 공동 할인 프로모션을, 일본은 '투어리즘 엑스포' 참가 및 현지 방송을 활용한 미식 홍보를 진행할 예정임 · 동남아 시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여행박람회에 참가하고,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통해 집중 공략함. 특히 싱가포르 직항 노선 확대에 맞춰 현지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인기 드라마 연계 관광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섬. 드라마 주요 촬영지인 제주목 관아, 성산 일출봉 등 4곳에 '선홍 그림 할망'의 작품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함 · 드라마에 등장한 제주 로컬푸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폭삭 속았수다 제주 한상차림' 쿠킹 클래스 상품도 개발하여 운영 중임. 참가자들은 직접 재료를 수확하고 드라마 속 도구를 이용해 요리하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음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야간 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표 야간 축제인 '2025 컬러풀산지 페스티벌'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주말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함.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함 · 개막식에는 가수 이재훈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가수 백아 공연, 토크 콘서트, 청소년 밴드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짐.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과 플라마켓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됨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웨이항공, 제주-싱가포르 직항 취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웨이항공이 지난 15일부터 제주-싱가포르 정기편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함. 기존 스쿠트항공에 이은 두 번째 직항 노선으로, 초기 주 5회 운항에서 9월 1일부터는 매일 운항으로 확대될 예정임 · 이번 신규 취항으로 제주-싱가포르 노선은 다음 달부터 주 12회로 늘어나며,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비행시간은 약 5시간 50분이며, 제주에서 저녁에 출발하는 스케줄로 운영됨 - 현지 여행박람회 참가 및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직항 취항에 발맞춰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인 '2025 나타스 홀리데이스'에 참가해 제주의 가을-겨울 콘텐츠를 집중 홍보함. 역사와 한라산 설경을 테마로 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인들의 관심을 끄 · 박람회에서는 렌터카, 택시 자유여행 등 개별 여행 콘텐츠와 함께 '무릉외갓집', '산양큰엉곳' 등 로컬과 트렌드를 결합한 여행 상품을 선보여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

	<p style="text-align: center;">싱가포르</p>	<p>성과를 거둬. 이는 지난 5월 싱가포르 여행사 대상 팸투어에서 선보였던 콘텐츠임</p> <p>- 동남아 시장 공략의 허브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허브로 삼아 말레이시아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임. 티웨이항공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 항공권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등 홍보를 지속할 계획임 · 공략 범위를 말레이시아까지 확대하여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을 통해 제주 여행 특집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p>경제·관광</p>	<p>농업</p>	<p>-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조건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로 농업 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농민들의 비판이 제기됨. 특히 당근의 경우, 파종 직후가 아닌 '새싹 출현율 80%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가뭄 등으로 발아에 실패한 농가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 월동무, 콩 등 파종 작물에 대한 불합리한 가입 조건을 현실적으로 낮출 것을 촉구함. 이는 묘종을 심는 작물은 정식 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임 <p>-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 운영할 방침임. 이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6개 농협에서 12개소로 확대될 예정임 ·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협약을 연장하고, 도입 국가 다변화를 위해 캄보디아와도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 하반기에는 약 17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임 <p>- 신품종 개발 및 농가 소득 증대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존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재배가 용이한 신품종 만감류 6종(가을향, 달코미 등)을 개발하여 올해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함. 지난해 시범 출하 당시 황금향 대비 2배 이상 높은 농가 수취가를 기록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올해 출하량은 60톤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이한열 제주안덕농협 조합장은 감귤 공선출하회 결성, 유통 판로 다각화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액을 크게 증대시키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단속, 해상, 도로, 차량, 신공항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마약 사범 급증, 집중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상반기(3~6월) 4개월간 마약류 사범 60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 대비 87.5% 급증한 수치임. 검거된 사범 중 공급책은 21명, 투약 사범은 39명으로 분류되었고, 텔레그램이나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18.3%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임 · 경찰은 마약 범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함. 이를 위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주동부·서부경찰서에 마약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2.3배 대폭 증원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이는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2년 594건에서 2024년 1167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임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적색 연석이나 복선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
-------	----	---

지역·사회	단속	<p>태료가 부과됨. 소방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개선할 방침임</p> <p>- 여름철 수상레저 불법행위 집중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 특별단속 기간 중 주말 이틀(16~17일) 동안 5건의 수상레저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함. 주요 위반 사례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항,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 보험 미가입, 미등록 기구 운항 등이었으며,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여선도 단속됨 · 해경은 특히 음주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은 대형 해양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위반 행위로 보고 이달 25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이번 단속은 휴가철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해상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됨
	해상	<p>- 김녕해변서 40대 익수 사망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일 오전 7시 59분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세기알해변에서 물놀이하던 40대 관광객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에 의해 패들보드로 구조되었으나,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함 · 당시 A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30대 남성 B씨도 구조 과정에서 의식이 저하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 B씨 역시 패들보드를 이용한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 <p>- 바다에 빠진 4남매 구조한 영웅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일 오후 4시 50분경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변에서 물놀이하던 4남매가 위험에 처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함. 7세 막내가 물에 떠 있는 공을 주우려다 깊은 곳에 빠졌고, 이를 본 나머지 3남매가 구하려다 모두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짐 ·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인근 레저업체 강사이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인 윤태완 씨와 채은지 씨가 즉시 구조에 나섬. 윤 씨는 수상오토바이로 2명을, 채 씨는 맨몸 수영으로 1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4명 모두 무사했음.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함 <p>-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 불감증 심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제주 해상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다이빙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제주시 용담포구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례가 목격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 올해 발생한 물놀이 사고 6건 중 4건이 해수욕장이 아닌 포구에서 발생하여 비지정 장소의 위험성이 부각됨 · 해수욕장이 아닌 숨은 명소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이나 포구에서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제주도의회에서도 항포구 내 무분별한 물놀이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론	<p>- 환상 자전거길, 불법주차로 몸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34km에 달하는 '제주 환상 자전거길'이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와 대

지역·사회	도로	<p>형버스, 심지어 깨를 터는 주민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음.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은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음. 일부 구간은 법적 최소 폭인 1.2m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시설 관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됨 <p>- 서광로 BRT, 속도 향상과 풍선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서광로 3.1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 후, 출근 시간대(오전 8~9시) 버스 이동 속도가 개통 전 시속 10~11km대에서 14~16km대로 평균 42%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일반 차량의 평균 주행 속도 또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일반 차선이 줄자 운전자들이 서광로를 피해 연삼로나 연복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하면서 해당 도로들의 일평균 차량 통행량이 1.2~1.5% 증가하고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함. 제주도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 추이를 분석할 계획임 <p>- 광양사거리 BRT 우회전 차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T가 도입된 서광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1차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광양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150m의 짧은 구간에서 4차로까지 급하게 3개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됨. 이는 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방해의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제주도는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호 체계를 조정하여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함. 이 개선안은 교통섬 등 일부 인도 축소를 포함하며, 우선 광양사거리에 시범 도입 후 다른 구간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차량	<p>- 구좌읍 4중 연쇄 추돌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일 오후 1시 40분경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주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 승용차 2대 등 총 4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히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는 앞서가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며 일어남 · 사고 차량들에 탑승하고 있던 7명 중 5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음. 현재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 <p>-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인상 실효성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과잉 공급된 택시(847대 초과)를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반납 시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기존 1억 1500만 원에서 1억 8050만 원으로 57% 대폭 인상했음. 이는 정부의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정책의 일환임 · 그러나 최근 개인택시 면허의 실제 거래 가격이 2억 원을 넘어 2억 10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보상금보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이 훨씬 높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전국민주택시노조는 이 정책이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없이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면허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고 지적함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이동수단 배터리 화재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일 제주시의 한 배터리 수리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함. 소방당국은 원인을 배터리셀의 '열폭주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장 내부와 충전기 등이 소실됨 · 제주소방본부가 실시한 화재 재현 실험에서도 전동킥보드나 보조배터리를 과충전하자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며 부풀어 오르고,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성이 확인됨. 소방당국은 인증 제품 사용과 충전 완료 후 즉시 전원 분리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함
	신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국정과제에 전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지역별 신공항 조속한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이 계획에는 제주 제2공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됨 ·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대선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의외로 평가됨. 이로써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공식화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 시민단체, 제2공항 국정과제 포함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운영 계획에 제2공항 조속 추진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이들은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함 ·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도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도민 우롱 행위'라고 규정함 - 신공항 추진, 기후위기 역행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단체들은 국정과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탄소 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함 · 또한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가 수요 부족으로 적자 상태인 점과 제주 제2공항의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함. 이들은 제2공항이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생태학살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